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1호 【루계 제24724호】 주체10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추격기 550호 좌실에까지 몸소 오르시여 전투기술적제원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높은 비행술을 보여준 여러명의 비행사들에게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현대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도와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씨야의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네트TV《미르 24》, 인터네트통신 뿔리뜨. 루, 이란의 파르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먄마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건축에서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웅장화려하면서도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노바야 가제따》, 에호 모스크비방송, 마야크방송, 인터네트TV《미르 24》, 인터네트통신 렌따. 루, 싱가포르의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TV《아시아소식통로》, 영국신문 《텔레그라프》, 에짚트웹싸이트 《아흐람 온라인》,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 이란, 싱가포르, 영국, 에짚트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로씨야의 에호 모스크비방송과 웨스찌. 루를 비롯한 인터네트통신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비행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니까라과싼디노민족해방전선 전국지도부에 축전을 보내였다

마나과

니까라과싼디노민족해방전선 전국지도부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니까라과싼디노민족해방전선창건 53돐에 즈음하여 귀 전선 전국지도부와 전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당과 귀 전선사이의 훌륭한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귀 전선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3(2014)년 11월 6일 평양

사설

온 나라가 떨쳐나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현시기 물을 더 많이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앞에 나선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이다.

물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우리 인민모두가 남부러운것 없이 살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물문제를 중시하고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 지방과 농장들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물원천을 확보하고 강우기관수, 고랑관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관수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물문제를 중시하고 빛나게 해결하여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 국장에 푸른 물이 차넘치는 수력발전소를 새겨넣도록 하시였으며 수력발전소건설과 함께 수리화완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 투쟁으로 전국이 들끓게 하시여 우리 나라를 관개의 나라로 전변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시기에 전국, 전민이 떨쳐나 물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도처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크고작은 저수지들이 수많이 생겨나게 되였다. 개천-태성호물길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자연흐름식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데 이어 백마-철산, 미루벌물길이 완공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오늘 세계적으로 물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초미의 과제로 되고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자원의 고갈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공업, 농업용수의 엄청난 소비와 물오염 등으로 물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있다. 물문제로 하여 나라들사이의 분쟁까지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물자원을 확보하고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 현시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도 왕가물이 들어 물문제해결은 더없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100년래 올해만큼 강수량이 적었던 해는 없었다. 결과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량이 떨어지고 많은 농업용저수지들이 마르거나 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다음해농사에 쓸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기와 쌀도 나올수 없고 강하천운수도 발전시킬수 없으며 도시건설과 경영, 국토건설도 잘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다음해에 우리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자면 결정적으로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

온 나라가 떨쳐나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려 다음해농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물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땅우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도 땅속으로는 물이 흐르기마련이다.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른 협동농장들은 례외없이 물원천을 확보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왕가물을 극복한 단위들이다. 농촌들에서는 저수지와 저류지, 보막이건설, 물주머니만들기, 논판물잡이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 굴포와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아 지하수도 퍼올리고 새 물길도 건설하여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댈수 있게 해놓아야 한다. 저수지들에 물을 빨리 채워넣어야 한다. 모든 역수양수장들에서는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깐지게 하고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저수지들에 물을 가득 채워넣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대단히 크다.

일군들은 자기의 어깨우에 다음해 농사의 운명이 지워져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물확보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드세게 밀고나가야 한다. 도, 시, 군, 협동농장들의 물확보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발이 닳도록 현지를 구체적으로 밟아가면서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기계와 로력을 총집중하며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함으로써 모두가 단숨에의 정신으로 물잡이시설들을 최대한 빨리 일떠세우게 하여야 한다.

관개부문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물잡이정형과 관개구조물들, 양수동력설비들의 상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 물확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은 농업의 생명수이다. 전국의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운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당면한 물잡이전투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물확보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확보하여야 한다. 자기 분조, 자기 작업반, 자기 농장의 물문제를 제힘으로 해결할 각오를 안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빛내여 다음해농사에서 물부족이란 말자체가 없도록 함으로써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농촌들에서 역수양수기들을 돌리며 저수지, 저류지를 비롯한 물확보시설공사에 필요한 전력과 세멘트, 연유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각지 농촌들에 새로 건설하는 물확보시설들의 위치선정과 설계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공사에 선행시켜 보장해주어야 한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빨리 완공할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는 자기 단위에 필요한 물은 자기가 해결하는 원칙에서 대책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일이자 자기 일이라는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물확보전투에 총동원되여 공민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물을 극력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동시에 벌려야 한다.

물절약이자 물확보이다. 농촌들에서는 물길가시기, 물길진흙다짐 등을 진행하여 물랑비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동해지구 농사에서 논벼 정보당 1t이상 증수한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적은 물로 농사를 잘 지은 단위들의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다음해농사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내밀어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저수지와 강하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리용하고있는것만큼 물을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물을 회수리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힘을 넣어야 한다. 수력발전소들에서 물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도 물절약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한방울의 물이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기 지역의 물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립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누구나 물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다음해의 농사에서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굴진을 앞세워 석탄생산을 늘인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불길드높이 석탄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석탄생산을 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0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많은 석탄을 증산하는 자랑찬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화력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화력발전소석탄보장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 나가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온 도가 떨쳐나 탄광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나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설비, 자재,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8월말까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남덕탄광 10갱 탄부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갱들에서 그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워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의하여 탄전들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석탄폭포가 끊임없이 쏟아져내렸다.

남덕탄광에서는 전투력이 있는 10갱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탄부들을 증산돌격전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막장을 떠나지 않고 탄부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였다. 탄부들의 비상한 열의는 그대로 석탄증산으로 이어졌다. 10갱에서는 10월에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1.4배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2갱에서도 매일 전달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생산을 1.3배로 늘이고있다.

인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10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이곳 탄광에서는 굴진과 채탄에서 과학기술이 안받침된 경영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특히 5갱의 탄부들은 결사의 각오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3갱과 1갱에서는 중대, 소대들이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회안탄광 2갱, 1갱과 송남청년탄광 2갱, 3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석탄산이 높아야 전력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정상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다음교대를 도와주기 위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송남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석탄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많은 탄차와 전차, 탄차바퀴, 부속품, 소공구들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막장마다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년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지난 10월 중순까지 년간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계획을 1.5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올해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위원회와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이곳 일군들은 년간계획수행을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하고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김승열, 류재용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년초부터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갔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배무이와 배수리, 새로운 어구들과 여러가지 고기그물준비,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물고기잡이철이 오기 전에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물고기를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기 위한 어로전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김경천, 박창혁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의 일군들은 수시로 변하는 어황조건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어로1, 2작업반 어로공들은 고기배수리정비와 어구준비를 잘하고 합리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작업반장 안수열동무를 비롯한 어로2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수십t의 물고기를 더 잡아 제일먼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세소어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세소1, 2, 3, 4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어구준비를 잘하고 새로운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작은 배들을 가지고도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세소2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식으로 치렬한 어로전을 벌려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지난 6월말에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곳 수산협동조합에서는 다시마생산에서도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길연동무를 비롯한 양식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다시마씨붙임을 적기에 하고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다시마태장관리를 깐지게 하였으며 수확을 제때에 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자원증식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어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참미역을 비롯한 수산물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가공작업반의 녀성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다시마말리기와 물고기가공에서 련일혁신을 일으켰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힘있게 벌리며 바다가양식도 더 잘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끝없는 탐구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더 많은 누에고치를

평안북도의 여러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올해 누에고치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의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누에치기에 힘을 넣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을 쓰시였는데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면 인민생활을 더 높일수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잠업을 발전시켜 질좋은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뽕밭관리와 누에치기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등을 고치생산사업소들에 제때에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웠다.

정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뽕밭비배관리를 짜고들어 뽕잎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누에치기에 힘을 넣어 년간 고치생산계획을 112.5%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동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년간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녕변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업소를 번듯하게 새로 건설한데 이어 고치말리기장을 개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년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108.7%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년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104%로 넘쳐 수행한 신의주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고치말리기장을 새로 일떠세워 종전에 비하여 누에고치합격품비중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정주, 태천잠업종자사업소들에서도 뽕밭비배관리와 누에치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년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룡천, 박천, 대관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도의 다른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도 누에치기를 짜고들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송창윤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정 론

조선의 체육열풍

조선이 체육강국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언제 한번 빈말을 해본적 없는 조선이 력사앞에 내세운 또 하나의 위대한 강국건설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내닫는 발구름소리가 강산을 진감한다.

우리 체육인들이 안아오는 승전소식이 이 땅을 뒤흔든다. 온 나라에 불어치는 드세찬 체육열풍속에 사회가 약동하고 시대가 전진한다.

체육열기는 오늘의 조선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이 머지않아 달게 될 또 하나의 긍지높은 문패는 체육강국이다.

1

경사로운 10월이였다.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리 당기발이 펄펄 나붓기고 어머니당이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 안아올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금방석들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만복의 10월,

우리 체육인들이 안아온 흐뭇한 금메달작황이 흥하는 세월의 기쁨을 더해주는 풍요한 이 계절 조국은 자기 력사에 아로새길 또 하나의 뜻깊은 시각을 맞이하였다.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평양시민들과 함께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선수들의 첫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축구경기장에서 만나뵈온 평양시민들이 격정의 눈물 흘리며 터치는 우뢰같은 환호성은 체육열기로 달아오른 이 땅을 다시한번 뒤흔든 강력한 충격파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선수들을 고무해주시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전에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던 탁구선수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날의 소식은 체육강국에로 나아가는 조국의 발걸음을 더 억세게 떠밀어준 또 하나의 나래였다.

마가을의 찬바람을 밀어내며 릉라도를 휩싸안은 그날의 열기는 그대로 이 땅에 파몰아치는 드세찬 바람—조선의 체육열풍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에 대한 격찬이 세계에 울린다.

《조선 체육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 《**김정은**령도자 평양시민들과 축구경기관람》, 《세계로 내닫는 조선스포츠》, 《조선에서의 체육열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육인들을 우대하고있다.》…

세계의 통신과 방송들이 한결같이 전하듯이 체육열풍은 오늘의 조선을 특징짓는 생동한 표어이다.

우리 체육인들이 안아오는 눈부신 전과들이 조선의 체육열풍의 열도와 세기를 뚜렷이 새겨준다. 지난해에 70여차의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164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근 390개의 메달을 쟁취하여 그 전해에 비한 메달획득수를 3배로 늘인 우리 체육인들이 올해에는 더욱 충천한 기세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신문과 방송들은 긍지에 넘쳐 우리 선수들의 국제경기우승상보를 줄기차게 보도하고있다. 지난 9월과 10월에만도 《로동신문》에 실린 국제경기대회들에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획득보도는 10여건에 달한다. 이것은 평균 3~4일에 한건씩 우승상보가 전해진것으로서 전례없는 체육전과이다.

조선의 체육열풍을 말할 때 이 땅에 불어치는 대중체육열기를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마다에서 이룩하는 혁혁한 전과와 함께 온 나라를 휩쓰는 강력한 대중체육바람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의 생활력을 펼쳐보이는 세찬 불길이다. 지금처럼 온 나라가 어디서나 체육으로 신바람나고 활력에 넘친적은 일찌기 없었다.

운동애호가들의 물결이 강반을 뒤덮는 이른아침의 대동강과 보통강유보도로부터 해가 져도 약동의 숨결 세찬 저녁무렵의 공원과 유원지들에 이르기까지, 운동열이 식을줄 모르는 일터들은 물론 인민반별체육경기들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체육열풍은 우리 생활에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사회의 공기가 되고 맥박이 되였다.

로라스케트바람, 승마바람, 스키바람이 시대어가 되여 울리고 기업소와 기업소가 대항하고 군과 군이 대항하여 선발한 각 도의 선수들이 치렬한 경기를 벌리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가 련 두해째 개최되여 온 나라는 말그대로 체육열기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사회의 약동과 풍조는 한 나라, 한 시대의 지향과 숨결을 느낄수 있게 하는 가장 생동한 표상이다.

조선의 체육열풍, 이 말이 안고있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조선, 이것이 가리키는 표대는 거창하다.

만일 어떤 나라와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힘있고 활력있는 시기를 말하라고 하면 그 하나로서 온 나라가 체육으로 흥한 시대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처럼 체육은 나라의 진보와 민족의 운명발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강력한 변수이다.

체육을 사랑하는 민족, 체육을 중시하는 나라, 이는 문명하고 힘있는 나라, 용맹하고 활기에 넘쳐 전진하는 인민이다.

체육은 총포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평화시기에 승패를 겨루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띄우며 국가를 울리는것은 바로 체육이다.

체육은 국력의 대결이며 체육경기에서의 우승은 민족의 힘과 정신력의 승리이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체육정신이 뛰여난 민족이였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조선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우리 민족의 특출한 체육정신과 기풍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들이 안받침되여있다.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를 말할 때 상무기풍은 당연히 첫손가락에 꼽힌다. 씨름과 활쏘기, 그네뛰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를 즐겨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용맹과 슬기를 키운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는 오늘도 민족의 력사에 긍지높이 새겨져있다.

체육이 국제적범위에서 경기대회형식으로 벌어진 후에도 세상을 놀래운 체육계의 많은 신화들은 조선사람들이 창조한것이다.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아시아사람으로 첫 금메달수상자가 된 손기정, 세계적으로 프로레스링왕자로 알려진 김신락(력도산) …

나라없던 그 세월 우승의 시상대에 오르고도 기쁨은커녕 슬픔과 통탄만을 뼈아프게 절감해야 하였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존엄높은 조국의 영예를 걸고 세계체육무대에서 련이어 새 기적을 창조하였다.

월드컵경기대회 8강자대렬에 아시아축구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한 조선의 천리마축구팀, 올림픽경기대회 권투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현대권투의 표본》으로 불리운 구영조, 오랜 세월 유럽나라들이 독점하였던 은반우의 장벽을 뚫고 세계빙상계에서 아시아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메달을 쟁취하여 세상을 놀래운 속도빙상선수 한필화,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있는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올라 왕관과 왕띠를 수여받아 세상을 격동시킨 세계탁구녀왕 박영순 …

조선의 체육정신은 놀랍고 신비한것이다.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기적에 기적을 덧쌓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어리석게 단언하던 그때 쎄빌랴의 마라손주로우에 혜성같이 나타나 세계의 선두에서 폭풍같이 내달린 마라손녀왕 정성옥, 힘의 대결로 일컫는 세계유술계에 일약 무적의 용사로 떠오른 유술녀왕 계순희, 새세기의 축구혜성으로 력사에 조선녀자축구신화를 긍지높이 새겨넣은 장하고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 …

민족의 피속에 맥맥히 흐르고 유구한 력사속에 억세게 이어져왔으며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눈부시게 비약해온 조선의 체육정신은 오늘 최후승리의 진군로우에 분화구를 터친 용암마냥 도도히 굽이친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국제경기마다에서 높이 휘날리는 우리 국기에 실려 누리를 진감하고 우리 선수들이 안아오는 승전소식이 천만의 심장에 락관과 환희의 불길이 되여 세차게 타번진다. 온 나라를 휩싸안은 드세찬 체육열기속에 사람들이 젊어지고 사회가 약동하며 창조와 위훈의 숨결이 강산에 충천하다.

그앞에 원쑤들이 악랄하게 추구하는 그 무슨 《제재》와 《인권》소동은 얼마나 가소로운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의 존엄을 유린하며 우리의 긍지를 빼앗으려 피눈이 되여 날뛰는 원쑤들의 뺨을 호되게 후려갈기는 조선의 체육열풍이다.

달려도 세계의 선두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싸우면 끝까지 승리하는 조선의 체육정신을 안고 초소와 일터마다 기적과 위훈 나래치고 대고조의 불바람이 강산을 진감한다.

사회주의의 든든한 성벽에 쉬를 쓸려는 자본주의사상문화의 독소가 이 강력하고 드세찬 사회주의조선의 씩씩한 발걸음앞에 산산쪼각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향취가 온 나라에 봄물처럼 굽이친다.

조선의 체육열풍, 그것이 펼쳐올린 오늘도 좋지만 환희롭게 안아올 래일은 더욱 좋다. 그 래일의 이름은 체육강국이다.

2

변이 나는 세월이였다.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이 어디서나 벅차게 나래치던 지난 8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것은 주체40(1951)년 3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이야기였다. 인민군대의 재진격에 당황망조한 미제가 제놈들의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전선에 살인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던 준엄한 그 시각 포연이 흐르던 이 땅우에는 참으로 경이적인 광경이 펼쳐지고있었다. 항일투사들로 축구경기를 조직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직접 16번을 달고 경기에 참가하신것이다.

사람들이여, 우리 잠시 세월을 거슬러 그날의 광경앞에 서보자.

불타는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우렁찬 응원소리, 빨찌산시절의 랑만과 열정으로 축구경기장을 종횡무진하는 항일투사들의 열기띤 얼굴, 그속에 16번을 단 선수복을 입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신심과 락관이 넘치신 모습으로 경기장을 달리고계시였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다. 인류의 력사는 체육의 력사라고 할만큼 부피가 방대하여 수많은 사변들과 사실들이 기록되여왔다. 하지만 한 나라의 령도자가 평화시기도 아닌 준엄한 전시에 번호까지 새긴 경기복을 입고 체육경기장을 달리였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어보지 못하였다.

16번!

모든것이 거기에 다 비껴있다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수 있다.

이 땅에 휘몰아치는 체육열풍의 뿌리도 거기에 있고 끝없이 태여나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의 체육신화의 비밀도 거기에 있다.

체육강국은 진정으로 체육을 사랑하는분, 체육의 힘을 진정으로 리해하고 온넋으로 체육을 중시하는 위인만이 건설할수 있는 강국이다.

우리 수령님은 그런분이시였다.

그런분이시여서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체육을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주시고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전화의 나날에는 싸우는 고지의 체육인병사들을 소환하여 조선인민군체육단을 조직하는 전설같은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조선의 기상이 국제경기장들마다에서 천리마체육신화들로 나래치게 하여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선의 체육강국건설사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으로 수놓아져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나라의 체육발전에도 형언할수 없는 시련이 겹쌓였던 준엄한 시기였다. 우리 장군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그리도 전선길 많이 걸으시고 단벌솜옷으로 만단풍파 막으시며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한 최전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던 그 나날 장군님께서 체육부문에 새기신 이야기는 감명깊은 또 하나의 《16번이야기》였다.

오늘 아시아의 최강팀으로 눈부시게 활약하는 조선의 녀자축구도 바로 고난의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 더욱 발전시켜주신 경기종목이고 명수육성의 기름진 터전인 청소년체육학교들도 바로 그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우리 장군님 변함없이 지켜주신 체육강국건설의 만년재보임을 우리 얼마나 가슴후덥게 새기게 되는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

세계의 그 어느 체육명인도 생각해내지 못한 백승의 비결 만탄창되여있는 우리 식의 이 경기원칙과 방법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기적의 보검임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풀어오른다.

우리 조국땅이 해솟는 바다마냥 설레인다.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올라 주체건축의 대번영기를 구가하고 모란봉악단의 아름다운 선률이 천만심장 불태우는 변이 나는 시대,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고 창공에 우리 국기 더 높이 휘날리는 흥하는 이 세월 우리 원수님 일으켜주시는 체육열풍이 휘몰아쳐 조국땅은 더욱 세찬 환희와 약동의 숨결로 고동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체육에 대한 인민의 꿈과 리상도 눈부시게 꽃피고있다.

세계가 인정하고있으며 우리 인민 누구나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조선의 체육열풍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일으키시는 오늘의 새시대의 기상이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세기의 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이 여기에 빛발치고 천만군민의 애국정신력을 활화산같이 분출시켜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시려는 그이의 불변의 의지와 담력이 여기에 뜨겁게 불길친다.

조선의 비밀무기는 얼마나 되는가?

오늘 세계는 국제경기마다에서 복병마냥 솟구쳐올라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는 조선의 체육인들을 보며 이렇게 묻고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선의 체육면모를 시위한 동시에 조선의 체육신화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것인가를 세계가 똑똑히 알게 한 계기였다.

한 외신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련전련승하는 우리 체육인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메달을 쟁취한 조선선수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승리를 위대한 령도자와 결부시켰다. 그들의 〈정신적핵무기〉의 위력을 홀시할수 없다. 조선이 어떻게 힘을 폭발시킬지 모른다. 세계는 기대하고있다.》

체육이 나라의 국력과 영예를 떨치는 포성없는 대결전으로 된 오늘 여기에서 승리자가 되려는 나라와 민족들의 노력은 대단하다. 두뇌전, 정보전, 심리전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이 총동원되고 첨단기술까지 활용되고있는 속에 최근시기 어느 한 축구경기에서는 최첨단기술에 의거한 경기운영체계를 12번째 선수로까지 불렀다.

과연 무슨 힘이 수십년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착한 봉쇄와 제재속에 있는 조선이 체육강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경기마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것인가.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0년, 300년에 맞먹는 두터운 페지를 아로새긴 우리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령도사를 삼가 펼친다.

폭과 깊이에 있어서, 열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그이의 정력적인 체육강국건설령도의 한페지한페지는 그대로 이 나라 체육인들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이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창설하도록 하시여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전국가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주시고 몸소 나라의 체육사업을 진두지휘하신 우리 원수님,

적들의 핵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였던 때에도 청춘거리 체육촌을 찾으시여 선수들에게 더 좋은 조건과 훈련시설들을 마련해주시려 로고를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가득 차넘친 진정이 무엇인가를 우리 체육인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훈련장에까지 나오시여 선수들의 훈련모습도 보아주시고 때로는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검열경기도 몸소 지도해주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자나깨나 바라시는것이 무엇인가를 이 나라의 체육인들은 심장으로 절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조선의 체육인, 이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금메달로 떨치고 빛내이는 체육전장의 미더운 전우이다.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발을 날리는 체육인들을 애국자, 멋쟁이라고 불러주시며 다른 나라들에서 국제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이 우리 나라에서는 새벽인 경우가 많은데 새벽 3시, 4시라고 하여도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신이 다 번쩍 든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는 우리 체육인들이 조국의 존엄을 걸고 싸워 이기고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 이역의 창공높이 게양되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눈물지을 때에는 자신께서도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시며 눈굽을 적시시고 그들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몸가까이 부르시여 위훈담도 들어주시며 온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시는 이 나라 체육인들의 친어버이이시다.

어찌 심장이 불타지 않을수 있으랴.

위훈과 용맹의 피 어찌 온넋을 불태우지 않으랴.

시상대의 높이는 조국의 높이이며 우리 체육인들의 보답의 높이이다.

이 세상 제일 위대하신분, 제일 정의롭고 강하신 백승의 령장을 진두에 모신 조선의 체육강국건설력사는 백전백승의 력사로 세기에 빛날것이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날을 따라 더 세차게 불어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기장에서 만나뵙는것이 격동적인 생활의 화폭으로 되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항경기를 펼치는것이 우리 생활의 행복한 이야기로 되고있다. 이 땅에서 력사는 진정으로 체육을 사랑하시고 체육으로 민족의 밝은 앞날을 앞당기시며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번영의 상상봉에로 힘차게 떠밀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모습을 보고있다.

그리고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대로 이 땅에 기어이 일떠설 주체의 체육강국의 눈부신 래일을.

* *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녀자축구선수들이 되라!

우리 원수님의 이 높은 뜻 조선의 체육인들의 심장의 피를 끓인다.

못해낼것이 무엇이고 안아오지 못할 기적이 무엇이랴.

위대한 조국, 강하고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체육인답게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경기를 하여 맞다드는 강팀들을 타승하라.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용맹의 무기로 비껴안고 포성없는 체육전장들을 종횡무진하며 금메달로 조국을 수호하고 금메달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조선의 체육인, 백두산대국의 체육영웅이 되라.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우리 체육인들의 삶의 요람이며 아름다운 미래의 전부이다.

체육인의 존엄이 몇푼의 딸라에 거래되고 선수의 몸값이 곧 돈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현실은 우리 체육인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체육의 활무대, 고마운 어머니품이라는 진리를 날이 갈수록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불뿜는 적의 화점을 서슴없이 몸으로 막은 리수복영웅처럼 조선을 떨치는 오늘의 체육전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맹한 전우,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아들딸이 되라.

《힘의 만능》을 어리석게 떠벌이며 우리를 고립시키고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원쑤들과 썩어빠진 황금만능을 휘두르며 오만하게 날치는 자본주의독점재벌들의 코대를 우리의 무진장한 힘과 조선사람의 본때로 무자비하게 꺾어버리고 세계의 모든 체육경기대회들에 우리의 람홍색국기가 제일 높이 오르게 하라.

체육을 사랑하라!

시대와 혁명은 오늘 우리의 심장에 이렇게 호소한다.

체육은 유흥이나 오락이 결코 아니다. 체육에 대한 사랑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고 집단에 대한 사랑이며 생활에 대한 애착이다.

체육을 사랑하지 않는 심장에서 용감성과 대담성이 나올수 없고 창조의 슬기와 지혜가 나래칠수 없으며 고난과 시련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기질과 승벽심이 생길수 없다.

일군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전화의 나날 우리 수령님의 《16번이야기》를 새겨안고 어려울수록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해야 할 일이 방대할수록 체육열기로 고난과 시련을 부시는 체육강국건설시대의 용감한 지휘성원이 되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누구나 체육열풍속에 뛰여들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며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준비해가자.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휘날리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질 그날을 향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에 체육강국의 문패를 보란듯이 달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만군민이여, 더 힘차게, 더 용기백배하여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자!

방 성 화

참된 선전일군의 모습

지난 10월 18일부 《로동신문》에는 길주군당위원회 선전비서였던 진정관동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의 주인공 진정관동무에게는 그렇듯 장렬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

그러나 길주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잊지 못해한다. 포전에 나서도 〈그때 선전비서동지가 여기에서…〉라는 뜨거운 추억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마을의 학교에 들려도 〈우리 선전비서동진 정말…〉하며 저도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지는 교원들을 볼수 있다.》…

우리 시대 참된 선전일군의 모습이 그려진 기사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겉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전일군의 모습입니다.》

선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교양자이며 고무자이다. 선전일군들의 교양자적, 선전선동자적역할에 의하여 사람들은 당정책의 본질과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관철에서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게 된다.

사상사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선전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중요하게 선전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선전일군은 어떤 사람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겉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는 일군이다.

선전사업은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런것만큼 대중앞에 나서는 선전일군의 외모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선전일군들의 사상적각오와 정치실무적자질이다. 아무리 겉모양이 미끈해도 선전일군의 심장이 당의 뜻으로 높뛰지 못하면 사상전의 명중포화를 들이댈수 없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자면 선전일군들자신이 먼저 당의 사상과 뜻을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방침, 자기 부문의 당정책을 환히 꿰든 선전일군이라야 대중을 우리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일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가는 일군,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적자질을 갖춘 일군이 바로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선전일군이다. 이런 선전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모든 일이 당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당정책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된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있으며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해 머리를 쓰며 이악하게 투쟁해나갈 때 그 단위의 사상사업이 잘되고 선전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다.

선전일군의 참모습은 겉모양이 아니라 사상정신적풍모에 있다. 모든 선전일군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의 사상적기수로서의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자신들을 우리 당의 사상의 제일체현자, 제일옹호자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참된 선전일군은 또한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태우는 일군이다.

사상사업에서의 패배주의는 경제사업에서의 패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선전일군들이 패배주의에 빠지면 사회주의사상진지가 약화되고 혁명과 건설이 생기를 잃게 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사상공세는 사상일군들의 패배주의를 불사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전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선구자, 용감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사상의 무기를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가는 높은 혁명성,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이신작칙,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모르고 끝까지 실천해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 이것이 선전일군들이 지녀야 할 풍모이다.

오늘 우리 선전일군들속에는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실천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 어디에서나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대중에게 알려주기 위해 수십리 밤길도 주저없이 걷고 대중과 한데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질통도 지며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선전일군들을 볼수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의 사상사업원칙을 베고 죽는 일군, 온몸에 기름냄새, 흙냄새가 푹 밴 선전일군들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사상진지가 굳건하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선전일군들의 혁명열, 투쟁열의 높이이자 오늘의 총진군의 활력이고 전진의 보폭이다. 혁명성이 높고 투신력이 강하며 언제나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뛰고 또 뛰는 참된 선전일군들의 모습이 조국땅 곳곳에 새겨질 때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될수 있다.

모든 선전일군들은 위대한 시대 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학

박봉주총리

황해남도안의 낟알털기정형 현지료해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낟알털기전투가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황해남도안의 농촌들에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박봉주내각총리는 황해남도의 옹진, 강령, 신천, 은률군의 낟알털기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여러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예상수확고판정과 탈곡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농업근로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고무해주었다.

총리는 올해 례년에 없는 왕가물로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물확보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의 낟알털기정형도 료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강령군 읍협동농장 낟알털기정형 현지료해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이 행복의 새 요람에 보금자리를 폈다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일떠선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원아들이 보금자리를 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내 조국땅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요람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원아들이 더욱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게 되였다.

6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 일군들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송이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뻐스들을 타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새 집으로 가게 된 아이들은 기쁨에 넘쳐있었다.

원아들을 태운 뻐스행렬이 지나는 만수대거리, 천리마거리, 영광거리, 청년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이 꽃다발을 흔들고 손을 저으며 아이들을 축복해주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홀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어리여있었다.

희한한 보금자리가 자기들에게 차례진것이 너무 좋아 웃고 떠드는 아이들로 하여 육아원, 애육원은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 지능놀이실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 갖가지 유희오락시설과 오락기재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육아원과 애육원의 여기저기에서 좋아라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의 환성이 연방 터져나왔다.

보육원, 교양원, 일군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원아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안겨주시려 늘 마음쓰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행복의 무아경에 잠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품이 있어 선군조선의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정히 받들어 원아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영양관리를 잘하여 그들을 강성조선의 억센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기쁨을 노래한 원아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당, 정권기관 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새집들이하는 원아들을 축하해주었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참신한 당적지도

기능공양성은 품들이기탓이다

신흥성천강기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신흥성천강기계공장은 크지 않지만 실력있는 단위로 소문이 났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초급당위원회에서 기능공양성사업에 힘을 넣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인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제는 기술기능수준에 대한 요구가 그전보다 훨씬 높아진것만큼 지금 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한편 새로운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 한 단위에 기계설비를 실어보낸 뒤였다.

초급당비서 전재혁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성능높은 기계를 제기일에 생산보장해준데 대하여 만족해하던 그 단위 자재일군의 얼굴보다도 어느 한 부위의 가공면을 오래도록 쓸어만지며 어딘가 불만족한 표정이던 기술일군의 얼굴이 떠올라서였다.

그는 가공작업반에 나가 그 부위를 가공한 담당자가 누구인가 알아보았다. 짐작했던바 그대로 기능급수가 낮은 작업반원이였다.

그날 저녁 지배인 한정윤동무와 마주앉은 초급당비서는 기능공양성을 위한 자기들의 사업정형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하는 기술학습, 주에 1차씩 진행하는 기술기능수준제고를 위한 사업정형총화…

제딴에는 기능공양성을 위한 사업에 품을 들이느라 했었다. 하지만 자기들의 사업에 빈틈이 있다는것을 그날의 일은 여실히 보여주고있었다.

다음날 열린 공장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기능공양성문제가 심각히 토론되였다. 좋은 안들이 나왔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직종별기능공양성담당제실시를 당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당세포들에서 고급기능공들이 기능이 낮은 로동자들을 두세명씩 고정담당하여 기능급수를 빨리 올려세우도록 당적분공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게 하였다. 이 사업은 점차 제도화되여 기능공양성과 기술기능수준제고에서 큰 은을 냈다.

공구 및 지구장비전시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하도록 한것도 기능공양성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게 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고급기능공들이 전시회에 참가하군 하였다. 이 틀을 깬것이 바로 초급당위원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전시회를 앞두고 당세포들에서 매 사람이 출품할 공구 및 지구장비들의 항목을 작성하고 기능이 낮은 로동자들의 출품항목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도와주도록 면밀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이 사업이 장려되면서 로동자들의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게 되였다.

품을 들인것만큼 기능공대렬은 빨리 늘어났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어느 한 단위에서 요구한 여러가지 구면형타의 생산과정이 대표적실례이다.

원바퀴식구면가공지구를 만들어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자는 공장설계실장의 기발한 착상을 실현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한것은 고급기능공들의 방조를 받으며 최근 기능공대렬에 들어선 사람들이였다. 이 가공지구로 가공해낸 구면형타는 높은 정밀도를 보장한것으로 하여 해당 단위 종업원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이 전면에 나선 오늘날 기능공양성사업은 결코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당조직들이 품을 들이는것만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된다. 이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뜨거운 진정과 창조의 열매

명학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명학탄광에는 탄광의 보배들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청년들이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다. 그들이 보배들로, 우리 소조원들로 떠받들리우게 된데는 오만자루의 품을 들여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와도 같이 소조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탄광의 초급당비서로 새로 임명되여온 정철식동무는 어느날 저녁 3대혁명소조원들의 방에 들리였다.

소조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방을 둘러보던 정철식동무의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인원수에 비해 방이 좁은데다가 콤퓨터며 비품들도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응당한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정철식동무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온밤 소조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들던 그는 다음날 협의회에서 소조건물을 새로 지어줄것을 제기하였다.

놀라는 일군들을 바라보며 정철식동무는 말하였다.

《우리가 품을 들이고 정을 기울이는것만큼 그들은 창조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됩니다. 친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소조원들을 보란듯이 내세워줍시다.》

이렇게 되여 소조건물을 새로 일떠세우는 전투가 벌어졌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일군들이 건설주, 시공주가 되였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인 김영철, 리원우동무들과 기사장 리광옥동무가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길을 뛰고 또 뛰였다.

정철식동무는 건설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현대적인 콤퓨터와 텔레비죤수상기, 극동기 등 소조원들이 리용할 생활용품들,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술서적들과 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하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온 탄광이 자기 일처럼 도와나섰다. 사무실과 침실, 세면장, 식사칸까지 갖춘 새 건물이 몇달사이에 일떠서게 되였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축복속에 새 건물에 이사하던날 3대혁명소조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결의다졌다.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더 높은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탐구의 날과 날이 흘러가는 속에 창조의 열매들도 무르익어갔다. 전기식버력적재기와 전차발제동장치, 밀폐식탄차베아링보호장치…

지난 기간 이룩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성과들은 당조직의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의 불타는 열정의 산물이였다.

명학탄광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3대혁명소조원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때 창조의 알찬 열매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영철

기술혁신에서도 정신력이 기본

룡천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룡천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장에서 올해에 기초식품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내세웠을 때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과연 승산이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으로 종업원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조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정신력은 더욱 앙양되게 되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마음의 탕개를 바싹 조이고 신심과 열정에 넘쳐 높이 세운 기술혁신목표실현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초급당비서 김동철동무는 지배인 리성갑, 책임기사 장성득동무들과 함께 기초식품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혁신목표가운데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려나가도록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먼저 자동수감장치에 의한 누룩손질기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부터 벌리였다.

기술준비원 김철호동무와 공무작업반장 김명남동무들은 책임기사와 함께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으로 누룩손질기의 회전날개를 개조하여 자재를 절약하고 전동기대수를 줄임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이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관점이 새로와졌다.

누구에게나 그 어떤 어려운 기술혁신목표도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이 생긴것이다.

보이라개조를 자체의 힘으로 완성한 사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보이라를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는 이 전투는 매우 어려웠지만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게 들이댔다.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침략자들을 족치던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내세운 기술혁신목표를 기어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하자는 내용의 정치사업이 기술개건을 위한 전투장들에서 힘있게 전개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들이댔다.

기술혁신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의 나날에 용접공 박하식동무는 탕크안에서 20여일간 용접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용접을 질적으로 해냈으며 장작업반장 김영철동무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이렇듯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보이라를 온수가열식으로 개조하는 기술혁신전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긍정적소행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그리하여 올해에 장절임생산공정을 더욱 완성하고 물엿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 등 많은 기술혁신목표들이 대중의 높은 열의속에 하나하나 실현되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면 그 어떤 어려운 기술혁신도 공장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기술혁신목표들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 공장 당조직이 찾은 귀중한 교훈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철령기슭에 새겨가는 애국자의 자서전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618건설돌격대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 운흥제련소대대 대대장 최룡삼동무

인생의 자서전은 종이장우에만 씌여지지 않는다.

조국에 바치는 고결한 충정이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이 땅에 솟아오를 때 그것은 곧 그 인간의 생의 흔적이 되여 자서전의 한갈피를 빛나게 장식하는것이다.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의 대지우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기는 사람들중에는 618건설돌격대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 운흥제련소대대 대대장 최룡삼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삶의 긍지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향락을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고산과수농장의 전망대에 올라 끝간데없이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바라보느라면 제일 인상깊게 안겨오는것이 과일나무지지대이다.

마치도 철령너머 전선에서 돌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기다려 늘어선 정예의 열병종대마냥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일매지게 서있는 과일나무지지대는 수십만개를 헤아린다. 말그대로 바다를 이룬 그 수많은 사과나무들을 어머니의 손길마냥 안아주어 세찬 비바람에도 꺾임이 없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과일나무지지대들에서 우리는 철령기슭에 새겨진 최룡삼동무의 생의 자욱을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 전투원들이 이곳 고산땅에 배낭을 풀었을 때 지지대생산에 필요한 단 한대의 설비도 없었다.

하지만 지지대가 없이는 한그루의 사과나무도 심을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심장에 새긴 돌격대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혼합기며 진동기, 문형기중기 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능력이 큰 과일나무지지대생산공장을 일떠세웠다.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최룡삼동무가 서있었다.

손에 피가 지도록 생산설비들을 조립하였으며 비좁은 기중기운전실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였다.

어느해 겨울 례년에 없는 강추위로 증기양생로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덮고자던 이불이며 담요를 제일먼저 들고나와 양생로에 씌워준 사람도 바로 그였다.

바람가려줄 벽체도, 눈비를 막아줄 지붕도 없는 로천에서 눈보라, 비바람을 다 맞으며 최룡삼동무는 쉬임없이 지지대를 만들고 또 만들었다.

기존공식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과일나무지지대의 경량화를 실현하여 지지대생산을 늘일수 있은것도 그의 남다른 고심과 노력의 결과였다.

최룡삼동무 (왼쪽에서 두번째)

그가 처음 과일나무지지대의 경량화를 발기했을 때 지지대의 강도보장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저었다.

최룡삼동무가 지지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기 위하여 며칠밤을 새우며 시험을 거듭하였으나 이렇다할 전진이 없었다.

실패가 거듭되자 보장해주는 자재로 생산만 잘하면 그만인데 괜한 고생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속에 최룡삼동무의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해낼수 있겠는지 하는 위구심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련대정치부장 김명회동무가 그를 찾아왔다.

깨여진 콩크리트조각들과 휘여든 철근이 널린 마당에 최룡삼동무가 맥없이 앉아있었다. 또 실패했던것이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때부터 한가마밥을 먹으며 10여년세월 함께 일해온 정치부장에게 최룡삼동무는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부장동지, 제가 정말 불가능한걸 고집하는게 아닙니까?》

김명회동무는 하루종일 철근조립을 하느라 험상해진 그의 손을 잡고 나직한 어조로 말했다.

《힘을 내자구. 난 동무가 잔등에 폭약을 지고 칼벼랑을 오르던 그 정신으로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다고 믿소.》

그 말을 듣는 최룡삼동무의 눈앞에 몇해전 어느 한 도로건설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도로건설을 힘차게 내밀던 대오앞에 30여m가 훨씬 넘는 날카로운 벼랑이 막아나섰다.

발파를 하자고 해도 경사가 너무 급하여 착암공들이 발을 붙일수 없었고 한쪽에는 낭떠러지여서 벼랑을 우회할수도 없었다.

부닥친 난관앞에 사람들이 주저앉았을 때 최룡삼동무가 폭약배낭을 메고 앞으로 나섰다.

《제가 벼랑에 올라가 폭약을 장진하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막아나섰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잔등에 폭약을 지고 칼벼랑을 톺아오르는 그의 모습은 한몸이 육탄이 되여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나가던 전화의 영웅전사를 방불케 하였다.

작은 돌쪼각이 굴러내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졸아드는것 같은 위험한 벼랑우에서 그는 균렬이 간 바위틈에 폭약을 장진하였다.

아찔한 벼랑을 오르내리는 시간마저 아까와 도화선에 불을 달고는 반대켠 바위틈새에 은폐하는 방법으로 그는 여러차례의 발파를 진행하였다.

발파를 끝내고 벼랑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다음날에도 그는 위험한 발파작업을 자신이 맡아나섰다. 하여 불과 며칠만에 수만㎥의 암반을 처리하는 위훈을 세웠으며 도로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 이바지하였던것이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는 최룡삼동무의 가슴은 새로운 의지로 높뛰였다.

머나먼 선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앞길에 대통로를 열어드리는 심정으로 죽음도 무릅쓰고 돌진하던 그때의 그 정신이 심장속에 맥박쳤다.

최룡삼동무는 또다시 시험에 달라붙었다. 피타는 노력끝에 그는 드디여 종전보다 적은 량의 철근을 가지고도 지지대의 강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철근조립구조를 착상해냈으며 세멘트와 자갈의 혼합비률도 합리적으로 다시 정하여 지지대의 경량화를 실현하고야말았다.

결국 지지대의 생산량을 종전의 같은 자재를 가지고 1.2배 늘일수 있었다. 이렇게 한대, 한대 만들어낸 지지대가 10만대, 20만대를 넘어섰으며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나날이 넓어져갔다.

지지대생산만이 아니였다.

포전배수로공사에 없어서는 안될 흙관제작전투에서도 최룡삼동무는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옮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원통형식의 흙관을 만들자면 규격화된 휘틀이 있어야 하였다. 휘틀제작에 필요한 강판은 있었지만 그것을 가공할 제관설비가 없었다.

그 설비를 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닌 끝에 어느 한 공장에 고장난 제관설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즉시 강판을 차에 싣고 대원들과 함께 그 공장으로 달려갔다.

공장로동자들과 함께 고장난 기대를 수리하고 그들의 도움속에 강판을 가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전기가 문제였다. 뜻밖의 일로 정전이 되였던것이다.

강판을 물린 기대가 멎어서고 모두들 어찌할바를 몰라할 때 최룡삼동무는 말없이 기대의 피대선을 감아쥐였다.

손으로 피대를 당겨서라도 기대를 돌리려는것이였다.

공장로동자들이 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돌격대원들입니다.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앞에 두고 순간도 주춤거릴수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돌격해야 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대원들이 나섰다. 두터운 피대를 힘을 모아 당기는 그들의 얼굴로는 땀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고 강판은 그들의 힘에 굴복한듯 서서히 원형으로 굽어들기 시작하였다. 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에 감동된 로동자들이 그들을 도와 함께 피대를 돌렸다. 이렇게 만들어낸 휘틀로 그들은 서로 다른 구경에 연장길이 수km에 달하는 흙관을 제작하였다.

최룡삼동무는 언제나 이렇게 당의 방침관철의 앞장에서 쉬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런 불같은 인간이였기에 그는 철사가 부족하여 철근조립이 지장을 받을 때 철사를 쓰지 않고 철근을 결박하는 기발한 착상을 해낼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ㄴ형강이 없이는 만들수 없다던 트라스도 이깔나무를 가지고 손색없이 만들어 강철공장건설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던것이다. 과일나무지지대와 흙관, 공사에 필요한 각종 부재들을 생산해내던 나날 최룡삼동무는 30여건의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막대한 건설자재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60여명의 기능공들을 양성하여 대대를 618건설돌격대적으로 기술기능수준이 손꼽히는 대대로 만들었다.

자체의 부업기지와 축산토대도 튼튼히 꾸려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은 그만이 아닌 온 가족의 마음으로 합쳐져 중학교를 졸업한 맏딸과 막내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618건설돌격대에 탄원하였다.

아버지도 자식들도 인생의 자서전에 애국의 한페지를 새겨넣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나갔다.

지난 9월 과일나무지지대생산량은 40만대 계선을 돌파하였다. 이로써 나머지생산과제를 올해중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기중기운전기술을 습득하고 운전공이 된 맏딸 최은별동무는 그날 최룡삼동무에게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아버지, 40만대 돌파를 축하해요. 이젠 당에서 제시한 전투목표를 올해중에 완전히 점령할수 있게 됐군요.》

5년간의 돌격대생활속에서 몰라보게 성장한 딸의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보며 최룡삼동무는 말하였다.

《너도 축하를 받아야지. 입당을 축하한다!》

서로를 축하해주는 아버지와 딸의 눈가에는 추억깊은 미소가 어렸다. …

최룡삼동무의 자서전의 대부분은 돌격대경력이다.

20대 청춘시절부터 50고개를 넘은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그는 광복거리와 통일거리건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과 고산과수농장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돌격전에 언제나 앞장서 달려왔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의 가장 자랑스러운 대목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에 참가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을 때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정을 다하여 키워주고 당원으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생의 끝까지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드는 영원한 돌격대원이 되겠다는것이 당기앞에 다진 심장의 맹세이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건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 평범한 당원이 바친 불같은 충정과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여 최룡삼동무를 선군시대 공로자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이제 최룡삼동무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쓸것이다.

—나는 백두산지구에서 조선로동당원이 되였으며 철령에서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녔다.

글 및 사진 승철진

에볼라비루스감염증예방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이 지금 전국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보건성,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들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에볼라비루스감염증예방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의학은 병이 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막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련관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협의회가 끝난 이후 보건성에서는 해당 성원들을 평양국제비행장과 신의주시를 비롯한 여러곳에 기동적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다른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및 소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보건성의 책임일군들은 이와 함께 외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격리시키는 한편 의학적감시를 정확히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료해하고 바로잡아주었다.

위생방역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 전국각지에서 *

화학공업성, 상업성, 수매량정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은 위생방역사업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조건보장을 빈틈없이 따라세우고있다.

이들은 여러 장소들에 격리되여 의학적감시를 받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숙식과 이동에 필요한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보건성에서는 이와 함께 각 도, 시, 군들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예방을 위한 위생방역사업을 엄격히 집행해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예방 및 진단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당 단위들에 시급히 알려준데 이어 보건성에서는 그 실행정형을 실시간적으로 장악하고 대책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해당 인원들을 격리시키게 될 장소를 위생문화적으로 원만히 꾸려놓고 의학적감시를 면밀히 하고있다.

그와 함께 격리된 사람들속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환자가 나타나면 즉시에 입원시켜 치료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다.

근로단체조직들을 통한 위생선전이 도시와 농촌은 물론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의 온 나라 곳곳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평양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의 의료일군들이 한개 구역씩 맡고 내려가 위생선전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시안의 구역(군)인민병원들과 진료소의 의료일군들 그리고 청년대학생들과 녀맹원들도 담당지역의 인민반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에볼라비루스감염증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23일 하루동안에만 하여도 전국의 1만 수천명의 의료일군들과 학생들이 수천개의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나가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위생선전을 진행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수백명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10여개 동에 수백개의 인민반들에 나가 단 한명의 에볼라비루스감염증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당의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위생방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지난 10월 28일 평안북도에서는 수많은 보건일군들과 대학, 전문학교의 학생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을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생방역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현재 에볼라비루스감염증진단에 필요한 시약들과 치료약물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전염병도 즉시에 대책할수 있는 정연한 위생방역체계를 갖추고 에이즈를 비롯한 악성전염병들을 미연에 방지한 우리 나라에서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올해의 위생방역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5일과 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리과대학,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평양원예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생물공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는 250여건의 론문이 제출되였다.

발표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미생물공학을 비롯한 현대생물학을 발전시키며 그 성과를 농업과 축산업, 의학과 식료공업에 널리 받아들여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농작물과 집짐승을 육종하고 여러가지 질좋은 건강식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소금기견딜성이 강한 벼종자를 육성하며 물고기세균병예방치료와찐과 원림해충구제용 무공해생물농약을 개발하는데서 달성한 연구성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페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은 평양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민족유산보호관리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이들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대돌 하나, 서까래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가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나라의 귀중한 재보를 빛내여나가는 참된 애국자들의 모습이 아니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검사검역을 보다 철저하게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에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의 일군들과 검사검역원들이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검사검역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우리 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긴장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과 국경지대 철도역과 항공역, 무역항들에서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전염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널리 퍼지지 않도록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일군들인 한영식, 김석환동무들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간다는 높은 책임성을 안고 그 어느때보다도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해나가고있다.

책임검사검역원 김광명동무와 검사검역원들인 홍정철, 한길봉, 윤의걸동무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이 병에 대한 위생선전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대한 자료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검사검역원들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배우에 직접 올라서 전염병을 미리막을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감있게 진행하는 이들의 위생선전은 선원들로 하여금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결과 출입항하는 배의 선원들은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의 증상과 그 예방대책을 잘 알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으며 이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검사검역소에서는 이외에도 위생검사설비들과 기재들로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치료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한 사업도 함께 내밀고있다.

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해당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만단의 대책을 세운 이들은 출입항하는 선원들에 한하여 비상방역위원회에 통보해주는 체계도 엄격히 세우고있다.

자신들의 검사검역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곳 검사검역소의 일군들과 검사검역원들은 말은 초소를 그 어느때보다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옥별

전염병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생방역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전염병을 미리막는것입니다.》

인류의 보건력사는 실제에 있어서 전염병과의 투쟁력사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14세기에 페스트가 수십년동안 지구상의 모든 곳을 휩쓸면서 영국에서는 인구의 90%, 아일랜드에서는 인구의 2/3, 중국에서는 수만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냈다.

16세기에는 천연두가 급속도로 퍼져 메히꼬에서는 수백만명,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냈고 19세기 20년대에는 콜레라가 세계를 휩쓸어 아시아나라들에서만도 수천만명이 사망하였다.

18세기 30년대부터 류행성감기가 여러차례에 걸쳐 퍼지면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어떤 도시와 마을은 인적이 없는 지역으로 되였다.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던 무서운 전염병들은 세균의 침입을 막아낼수 있는 예방약들이 개발리용되면서 점차 종적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현미경의 발견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던 병원성미생물들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전염병예방약들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던 전염병들이 없어졌다.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그 병원체인 휠로비루스에 대한 유전자구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한데로부터 아직까지 특이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전염병은 다른 비루스성전염병들과 달리 유기체의 면역기능을 낮추는것과 함께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혈소판수를 감소시키는 결과 온몸에서 심한 출혈을 동반한다. 그리고 피부에 작은 물집이 생겼다가 융합되면서 큰 물집으로 변하여 떨어져나감으로써 심한 탈수를 일으켜 사망률이 특별히 높다.

보건부문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의료일군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휠로비루스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비루스제를 하루빨리 개발하는것과 함께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휘해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최창식

누구나 즐겨찾는 봉사기지

양덕군 은덕원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편의봉사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훌륭하게 꾸려진 양덕군 은덕원을 찾았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그 사랑을 전하며 어서 오라 부르는듯싶은 은덕원에 들어서니 모든것이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현관홀의 눈부신 무리등이며 거울처럼 매끈한 홀바닥, 특색있게 건설한 원형계단이며 윤기도는 란간과 울림폭포의 풍경화는 볼수록 장관이였다.

인민들의 기쁨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인민들의 행복속에 나의 행복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보는 우리의 가슴에는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다시금 뜨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리발작업반장 리춘희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은덕원을 돌아보았다.

그는 은덕원이 개원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2층으로 이끌었다.

현대적인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리발실과 미용실, 안마실과 미안실들에서 친절한 봉사를 받은 손님들마다 거울앞에 서서 한결 젊어진것 같다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었다.

《유명한 양덕온천으로 하여 우리 은덕원에 군내주민들은 물론 다른 고장의 주민들도 줄지어 찾아온답니다.》

박창숙동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배인 김원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은덕원을 오늘과 같이 훌륭히 개건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전에는 읍지구 주민들이 온천욕을 하자면 읍에서 떨어져있는 온천까지 가야 했다.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겠는가 하고 생각하던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봉사자들은 온천물을 자체의 힘으로 은덕원까지 끌어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시장철 더운물이 출렁이는 목욕탕을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던 때의 가지가지 이야기는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었다.

지난 몇해동안 보수작업반장 박창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4400여㎡의 벽체타일붙이기와 지붕공사, 지하목욕탕, 야외물놀이장을 번듯하게 완공하였다.

돌아보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은덕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깐진 일솜씨를 엿볼수 있었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일해나가려는 이들의 불같은 열의가 비껴있는 봉사기지는 돌아볼수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둠이 깃들었으나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쉬임없이 이어졌고 은덕원을 나서는 주민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랑만이 한껏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홍창혁

온 겨레가 안겨살 인간사랑의 대화원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초보적권리인 인권까지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녀성과 어린이, 로인들이 사회적재앙의 희생물이 되여 버림받고있다. 남조선에서 펼쳐지고있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남녘겨레들의 가슴속에 오직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소망이 현실로 꽃펴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굳건히 간직하게 하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국가의 혜택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북은 인권이 참답게 보장된 사회》, 《이북이야말로 전민이 만복을 누리는 리상향, 인권의 대화원》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인간의 초보적권리를 보호하는것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문제이지만 이남에서는 인권이 이미 헌신짝처럼 내버려진지가 오래다. 그러나 우리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이북의 민중은 비정규직로동자라는 말도, 실업자라는 말도 모르고 산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민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여 로동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일하고있다 한다. 우리도 그런 희한한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인천의 한 주민의 목소리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남녘겨레의 절절한 동경심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생활의 막바지에서 근심과 걱정속에 연명해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인권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는 우리 공화국은 희망의 등대인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옹호의 법을 찾고싶어 법학을 배웠다는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서고금의 법전들을 다 연구해보았지만 이북의 기본법인 김일성-김정일헌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시하는 법은 없다. 김일성-김정일헌법에는 국가가 공민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뿐아니라 물질,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을 보장해준다는것이 규제되여있다. 나라의 기본법이 이러하니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 적용되는 모든 법들과 시책들이 인민적일수밖에 없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또한 로동과 휴식, 무료교육 등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것은 다 이북의 김일성-김정일헌법이 인민적인 법이기때문이다. 이북과 같이 민중의 권리가 담보된 사회에서 하루라도 살고싶은것이 나의 소원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북에서는 누구나 마음의 구김살이 없고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이 평등하고 유족하게 살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이 대의원으로 추천되고 그들이 선거권도 행사하고있다. 그런 리상향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북의 정권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정권이고 인민적인 정권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비단 그만의 심정이 아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녀성인권연구회의 한 녀성간사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탁월한 령수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이북이 그렇듯 리상적인 인권복지사회로 된것은 민중의 생활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워주시고저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는 따사로운 해님을 모신 덕분이다. 민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사회발전과 인간생활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해빛에 의해 오늘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의 대화원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세쌍둥이가 태여나면 나라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이북의 현실은 이남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주장한 녀성인권운동가와 《이북에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입양아란 말자체가 없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린이의 천국이 바로 이북이기때문이다.》고 강조한 인천의 한 녀성의 가슴속에도 조국의 미래를 소중히 안아키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태양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듯이 만발한 인권의 화원도 가꾸어주는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인간사랑의 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은 남조선인민들 누구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하루빨리 관철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인간사랑의 화원으로 나날이 더 활짝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품에 안겨살 그날을 앞당겨오려는 투쟁의 결의로 불타오르고있다.

남녘겨레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미래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민족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새롭게 일떠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여러차례 돌아보시면서 온갖 배려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격찬하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 사실,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데 대해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더우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을 발기하시고 완공되였을 때에는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마련해주시고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도록 하신것은 남조선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이북같은 세상에서 하루빨리 살고싶다.》, 《어서 가자, 민중의 락원인 북반부에로!》

이것이 남녘겨레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강렬한 지향이고 념원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위대한 민족애가 펼친 감동기풍은 이야기◎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주체89(2000)년 8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이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지난날 자기들의 허물을 나무랄 대신 너그러운 아량과 넓은 포옹력으로 따뜻이 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남조선언론사대표들가운데서 한 인사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공화국의 발전모습 특히 만화영화와 콤퓨터기술분야의 비약적인 성과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만화영화제작과 콤퓨터쏘프트웨어수준이 매우 높은데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합작하여 해외에 진출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것 같다고 장군님께 말씀올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남조선언론인들을 둘러보시며 북과 남이 이 분야에서 합작하면 우리가 50을 가지고 남조선이 50을 가지는것으로 돈이 다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와 합작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남측대표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더 생각해볼 여지가 없이 너무도 명백한 그이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모든것을 민족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며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우리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 조국통일에 복종시켜나가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 민족끼리

뜻깊은 이 명제를 외워볼 때면 우리 겨레는 민족이 그토록 바라는 조국통일에 대한 명철한 해답을 주시며 신심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가슴뜨겁게 우러르게 된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언론사대표가 위대한 장군님께 이런 말씀을 올린적이 있었다.

《국방위원장님,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좌중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즉석에서 해답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온넋이 끌려 그이의 고견을 받고저 스스럼없이 올린 질문이였는데 그만 그 의미가 다르게 안겨지자 질문자도 당황해졌다.

그러나 남측대표들의 얼굴에 비꼈던 그 당황의 빛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탄의 빛으로 바뀌게 되였다.

우리의 장군님께서 즉석에서 통일의 시기는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참으로 이것은 통일의 시기를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명쾌한 해답이였다.

이날 남측대표들은 통일이 되는 때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는 진리를 똑똑히 새겨안게 되였다.

새길수록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통일애국의 대명제였다.

본사기자 김 향 미

범죄적인 《통일헌장》조작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들이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념원을 우롱하는 범죄적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107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괴뢰패당이 그 무슨 《통일헌장》제정이니 뭐니 하는 놀음을 벌려 온 겨레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괴뢰들은 다음해 8.15를 계기로 저들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통일헌장》을 제정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헌장》조작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니, 간담회니 하는것들을 뻔질나게 벌려놓고있다.

가관은 괴뢰패당이 《통일헌장》을 《국민적합의》와 《국제적지지》에 기초하여 만들어 집권자의 수표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정권》이 바뀌여도 변하지 않는 《최상의 통일지침》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겨레의 통일념원과 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통일헌장》문제로 말하면 원래 리명박《정권》때 여당패거리들이 들고나왔다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흐지부지되여 변변히 론의도 못해보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던것이다.

선행《정권》이 줴버린것을 현 괴뢰패당이 다시 주어들고 제 낯내기를 해보려는것자체가 세상웃기는 일이거니와 《통일대박》이니 뭐니 하면서 《분단 70년이 되는 다음해 반드시 내놓아 통일헌법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것은 제 주제도 세상돌아가는 물계도 모르는 참으로 가소로운 망동이다.

지금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통일헌장》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북남사이에는 민족공동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으며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같은 훌륭한 통일대강이 마련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가장 공명정대하고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이 다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통일로 가는 로정뿐아니라 통일국가의 국호로부터 그 전모와 활동원칙, 통일정부와 지역정부들의 권한과 임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환히 밝혀져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가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한결같이 공인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왕청같이 그 무슨 《통일헌장》제정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인 조국통일3대헌장과 그를 재확인하고 실천에 구현한 북남선언들을 저들의 범죄적인 《통일헌장》에 대치시켜 그 력사적의미를 약화시키고 그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지지를 차단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그것은 또한 저들의 반통일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여론을 오도하여 통일에 관심이 있는듯이 내보이고 현 집권자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괴뢰들이 저들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는 《통일헌장》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는 사실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괴뢰패당의 《통일헌장》조작책동은 체제대결, 《제도통일》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러낸것이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겉으로는 《대화》니, 《신뢰》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속은 체제대결흉심으로 꽉 차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괴뢰패당이 이미 마련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불순한 목적의 《통일헌장》을 따로 조작하려고 하는것은 민족의 의사와 내외여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거역이다.

온 겨레는 체제대결에 환장이 되여 민족의 통일념원을 우롱하는 괴뢰패당의 《통일헌장》조작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괴뢰패당은 범죄적인 《통일헌장》조작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고 북남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일헌장, 통일대강들을 지지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미국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10월 31일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배후에서 지원하고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삐라살포로 군사분계선지역 주민들이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아가고 모처럼 마련되였던 남북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파탄위기에 놓여있다고 개탄하였다.

보수단체들의 삐라살포가 왜 계속되며 누구의 비호아래 누구의 돈을 받아 진행되는가고 하면서 성명은 그에 대해 까밝혔다.

삐라살포는 2004년 미국에서 《북인권법》의 통과로 본격화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북인권법》에는 민간단체가 북의 체제를 비방하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미국대통령이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기금》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북붕괴》를 목표로 《탈북자》단체들에 자금을 대주었다고 단죄하였다.

2008년부터 미국은 《북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반공화국모략단체들과 보수언론들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고 까밝혔다.

특히 삐라살포가 강행되는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미국이 관할하고있는 지역으로서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것도 바로 미국이 삐라살포를 배후에서 적극 지원해주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반공화국삐라살포의 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세월》호유가족들을 외면한 괴뢰집권자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0월 29일 사설을 통해 괴뢰집권자의 기만적인 처사를 비난하였다.

사설은 집권자가 이날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이라는데서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집권자는 《국회》청사앞에서 기다리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오다가 〈세월〉호유가족들을 보지 못하였는가?》라는 야당성원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까밝혔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랭정하게 외면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의지를 찾아볼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권자가 제 하고싶은 이야기만 하고 국민이 듣고싶은 이야기엔 입을 다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괴뢰군부당국의 굴욕적처사를 단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0월 31일 151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괴뢰군부당국의 굴욕적처사를 규탄하였다.

단체는 군부당국이 미국과의 년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안보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미국주도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가입하는 문제를 공식화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자기 국민의 리익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굴욕적처사로 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결탁을 반대

남조선 각계에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키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의 호전적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10월 16일 남조선의 로동계,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은 서울에서 시국회의를 가지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 일, 남조선당국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지금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행사시도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지원에 의해 더욱 본격화되고있으며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사정보공유가 공식화된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요격미싸일의 남조선배치도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선언문은 그것이 현실로 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첨예한 군사적갈등과 대결을 조장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무력을 집중시키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한편 남조선당국이 그에 적극 편승하고있다고 규탄하면서 긴장고조와 위기만을 초래할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사적결탁강화책동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진보련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로동자련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은 10월 18일 서울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서 핵심으로 되는 고고도요격미싸일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안보》라는 미명하에 고고도요격미싸일의 남조선배치를 허용하고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을 뒤받침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고고도요격미싸일의 남조선배치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에 위협으로 된다는것을 알면서도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연기를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배치를 추진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각계층이 그것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미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본사기자 김 현 철

괴뢰집권자의 여론기만극을 비난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10월 30일 괴뢰집권자의 여론기만극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박근혜가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면서 경제와 민생살리기니,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느니 하고 운운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면하게 풀어야 할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악화된 남북관계개선,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무기한 연기 등 민감한 문제들은 모두 피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집권자는 국민들이 듣고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글은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페허지대

지금은 인류가 자주적존엄을 안고 참된 삶을 누릴것을 지향해나가는 21세기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의 정당한 활동은 《종북》으로 몰리워 가차없이 탄압당하고 각종 《간첩》사건조작이 란무하며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조선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페허지대로, 인간생지옥으로 만든것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독재통치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극악한 파쑈폭압통치이다.

남조선의 정치체도는 그자체가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민주주의적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가장 악독한 파쑈독재체제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의 뿌리는 침략적인 외세가 해방후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 짓밟고 민주의 피바다우에 간판을 건 반인민적인 친미독재《정권》이다. 외세의 뒤받침밑에 력대로 남조선통치배들은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고 부단히 강화하는것으로 독재통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강권과 야만적인 폭력행사로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진출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남조선독재자들은 정보망, 감시망들을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불법사찰, 불법도청을 마구 감행하여 인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남산지하실과 같은 중세기적인 인간도살장들을 도처에 만들어놓고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량심적인 인사들과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학살하였다. 리승만역도의 포악한 경찰통치로부터 정보정치, 공포정치로 악명높았던 《유신》독재정치, 땅크의 무한궤도로 민주를 교살한 《5, 6공》군사독재와 《문민》파쑈통치, 과거의 군부독재시대를 되살린 《실용》독재 등은 남조선괴뢰정치의 파쑈적진면모를 그대로 고발하고있다.

지금 내외여론들은 남조선에 현대판 《유신》파쑈독재체제가 도래하였다고 개탄하고있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 남조선괴뢰정권은 《유신》독재에 바탕을 두고있다. 집권전부터 죄악의 과거를 공공연히 찬미해온 현 보수집권세력은 권력을 차지한 후 《유신》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1인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유신》독재시기 통치기구를 전면적으로 되살려놓았다. 정보원도 《유신정권》때 중앙정보부와 같이 법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어 정치사찰, 수사, 처형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하고 검찰, 경찰 등 파쑈폭압기구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아니라 파쑈화를 더욱 심화시킨것이다. 집권세력은 이에 기초하여 《유신》독재자의 본때대로 정당, 단체들에 대한 살벌한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핵심성원들을 구속탄압하는 만행을 감행하고있으며 《보안법》을 휘둘러 사회전반에 살벌한 폭압정국을 조성하고 집회, 시위, 결사 등 초보적인 정치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마저 철저히 말살하고있다. 최근에만도 파쑈도당은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을 비롯한 통일운동인사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원이 미국과의 동맹폐기,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악형을 들씌웠다. 이것이야말로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리적》, 《용공》으로 몰아대며 야수적으로 처형하던 《유신》깡패들을 방불케 하고있다.

《언론의 자유》는 간곳없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들은 당국의 철저한 통제밑에 있으며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글은 즉시 삭제당하고 필자는 정보원의 심문과 조사를 받거나 해고당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집권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만도 야당들과 정치적반대파들이 줄줄이 탄압당하고 지난 15년동안 합법적인 로동조합으로 활동한 전교조가 박해의 대상이 되였으며 인터네트싸이트에 게재된 수만건의 글이 강제삭제되고 수백개의 인터네트싸이트들이 강제폐쇄당하였다. 이러한 파쑈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수 없고 인민대중이 그 어떤 정치적권리도 행사할수 없으며 그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법이다.

괴뢰패당은 파쑈독재통치로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그 무슨 《행복》이니, 《민주화》니 하면서 각종 공약들을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한갖 권력을 타고앉기 위한 말치레, 기만술책에 불과했다. 괴뢰집권자는 집권 6개월도 되기 전에 이미 약속한 경제, 민생관련 공약 200여개중 절반에 달하는 공약들을 파기하거나 리행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한줌도 못되는 대재벌들과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옹호해나섰다. 집권이후 그들이 한것이란 근로인민대중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은것뿐이다.

지난 7월 괴뢰당국은 농민들의 피타는 절규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마지막명줄로 남아있던 쌀시장마저 전면개방시킴으로써 남조선을 외세의 식량노예로 완전히 전락시키고 가뜩이나 령세한 농민들과 쌀생산과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던 숱한 로동자들의 삶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최근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공무원들과 교원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은 현 괴뢰정권의 반역정치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다. 괴뢰패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임금을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공무원들과 아무런 토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실론의로 공무원들과 교원들의 년금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물가가 날로 치솟고있는 현실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임금으로 살아갈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렇듯 반역적인 년금개정놀음으로 800만의 공무원들과 교원들의 삶을 심히 우롱하고있다. 보다싶이 괴뢰패당은 인민들이 반대하는 반역정책들만 골라가면서 내놓아 근로대중을 빈궁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들고있다. 지금도 남조선전지역에서는 《우리는 더이상 노예가 될수 없다.》, 《생존권 보장하라》, 《로동3권 보장하라》등의 구호를 웨치며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확대, 임금축소, 로조탄압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있는 괴뢰패당의 반역적악정에 항거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줄줄이 파산되는 기업체들과 거리를 휩쓰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실업대군, 당장 생계를 이어갈수 없어 아우성치는 인민들 그리고 뛰여오르는 물가와 세금,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 도처에서 꼬리를 무는 자살참극들은 괴뢰패당의 반역적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해주고있다. 얼마전 인천에서 온 가족이 더는 살래야 살길이 없어 잘못 만난 사회를 저주하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사실은 남조선 각계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근로대중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반역패당에 의해 《세월》호참사와 같은 특대형사고들이 도처에서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판을 치는 속에 가족살해사건, 해마다 9 000건이 넘는 어린이실종사건, 련쇄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사건들이 매일같이 저질러지고있다.

이런 처참한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현 괴뢰당국은 집권 1년이 되는 지난 2월에 이미 국제대사령으로부터 인권개선을 권고하는 공개서한을 받았다. 국제로동기구리사회에서도 괴뢰패당이 로조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데 대해 비난하는 보고서가 채택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사회적불평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는 보수당국의 정책이 문제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장기간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싹을 여지없이 짓뭉개고 남조선을 초보적인 인권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불모지로 만든 보수패당의 파쑈적망동에 치를 떨고있다.

죄악에는 벌이 따르기마련이다.

파쑈독재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가혹하게 짓밟은 괴뢰패당의 죄악은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라 설 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통할수 없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배격하는 국제사회계의 흐름이 거세여지고있다. 로므니아와 에짚트, 벌가리아, 벨라루씨, 나이제리아, 로씨야, 영국, 브라질, 메히꼬, 뻬루, 스위스를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단죄하는 정당, 단체들의 성명과 저명한 사회인사들의 담화가 발표되고있다.

지난 9월 베닌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을 찬양하는 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러 나라의 단체, 기관에서는 련대성집회와 시위, 항의행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라!》 등의 반미, 반전구호들을 손에 든 참가자들은 최근에 들어와 더욱 엄중한 사태로 번져지고있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우리 인민의 자주권수호전에 합세할 의지를 과시하였다.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인권》공세의 허황성과 침략적성격을 까밝히는 글들이 무게있게 실리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벌리는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이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광범한 민심에 쫓기며 또 하나의 거세찬 반미열풍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인권채찍》을 든것자체가 참다운 인권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99%가 1%에 모든것을 빼앗기고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간생존권의 동토대이며 인권불모지이기때문이다.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그칠새없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들은 또 어떠한가.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누구도 사생활과 가정, 주택 또는 서신에 대한 전횡적인 간섭이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는 철두철미 특대형인권유린행위이다.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린 침략과 간섭은 인권유린행위를 동반한 최악의 국가테로범죄가 아닐수 없다.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국의 경제제재소동과 정부전복책동 또한 악랄한 국권침해, 인권유린행위이다. 꾸바에서만도 50여년동안 계속된 미국의 제재로 입은 경제적손실액은 1조US$가 넘는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원유금수조치로 원유공업부문에서만도 해마다 350억US$의 손실이 초래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국가수반들에 대한 암살음모까지 조작하고 그것을 미행정부가 나서서 뒤받침해주고있는것이다. 몇달전 미국무성 관리들이 국제금융업자들과 베네수엘라의 반정부고위인물들과 작당하여 비밀리에 추진해오던 베네수엘라대통령에 대한 암살기도가 드러난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로씨야에서 출판된 한 도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래 미국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합법적으로 선거된 50여개의 정부를 전복하고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지난해 5월 카나다의 인터네트홈페지 《글로벌 리써취》는 미국이 70여개 나라의 분쟁들에 온갖 구실을 내걸고 끼여들고있다고 까밝혔다.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인권유린범죄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원래 인권은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들이 좌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력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인권의 기준은 그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각이하게 설정되게 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인권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들이며 인권형편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것도 그 당사자인 인민들이다. 특정한 나라와 집단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기준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론할 여지도 없다. 더우기 정의와 도덕을 파괴하고 인류사회를 부패, 변질시키는 서방식 다시말하여 미국식 《인권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은 미국이 《인권》을 옹호한다는 구실밑에 부단히 이식해놓은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며 인간과 사회를 망쳐놓는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도 다를바 없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있지도 않는 조선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은 인민이 지지하는 나라,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에는 인민의 복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재가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된다는데로부터 이 나라에 먹칠을 하고 자주적인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가리우기 위한 외교가 필요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깎아내리고 고립압살하려는 비렬하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세상에 자주독립국가가 새로 탄생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는것은 국제관계의 례상사이다.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수립은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해왔다. 1991년에 우리 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현재 160여개 나라가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의연히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며 인정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현대국제관계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을 우리 나라에 실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애당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표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을 가증시켜왔다. 우리를 반대하는 제도적, 법률적장치들이 구축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도발이 로골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우리를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한 경제제재와 국제적압박이 끈질기게 지속되여왔다. 《인권》소동도 여기에 복종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으로 이 땅을 이전 유고슬라비아나 리비아, 이라크로 만들어보려 하는것은 영원히 이룰수 없는 망상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자기 시대를 다 산자들이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파악도 없이 고안해낸것으로 하여, 강도적이고 독선적인 적대론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파멸의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인권》소동을 짓부셔버리는 투쟁을 참다운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포성없는 전쟁으로 여긴다. 물론 우리는 아직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람 못살 사회, 약육강식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고 진정한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있는 미국과 같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를 눈아래로 내려다보고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다진 우리 인민이다. 우리는 제힘과 제손으로 누구나 다 잘사는 무릉도원을 이 땅에 일떠세우려는 휘황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나가는 크나큰 희열과 랑만의 세계에서 사는것을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부당한 압력과 위협을 가하는자들이 자기류의 《힘》을 가지고있다면 우리 인민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그 힘은 백배천배로 강하다. 미국은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20여년세월 벌려온 《북핵소동》이 결국은 우리 공화국을 강위력한 핵억제력과 최첨단전략전술로케트를 보유한 최강의 군사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웠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태여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피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이라는데 대해 숨기지 않는다. 미행정부의 수급사환군들은 저들이 불을 지핀 불순한 《인권》소동이 인간이 야수를, 정의가 부정의를, 진리가 허위를 짓뭉개버리는 반미성전의 도가니속에 어떻게 곤두박히는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멸에로 줄달음치는 가련한자들의 아우성을 듣는다.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대상과 잘못된 전쟁을 치르었다고 한 1950년대 미제살인장군들의 비명을 다시금 듣는다.

배 금 희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방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4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독창적인 통일로선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방안이다.

조선의 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숙원이다.

미제는 조선을 분렬시킨 장본인이고 조선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침략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으며 특히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여 통일운동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다.

자주의 사상을 구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통일실현에서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수 없으며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할것을 천명한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침이다.

미제가 모든 침략군과 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갈것과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리행할것을 요구한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리라고 확신한다.

*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4돐에 즈음하여 기네조선친선협회에서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신데 대하여서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통일국가건설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련방제방식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된다.

북남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고 전쟁위험을 가시며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지난 시기 합의한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데 있다.

국제사회는 현 북남대결은 곧 통일방식의 대결이며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시도가 전쟁만을 불러오게 된다는데 대하여 바로 인식하고 련방제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드는것을 정책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현 미행정부가 《인권문제》를 구실로 조선의 사회제도를 전복하려는 정책을 공식 추구함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의 근본기초로 되였던 조미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데 대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공약을 깨버리고있다고 까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인권대화는 진행할 용의가 있지만 조선을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대화도 허용할수 없다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이란의 프레스TV방송, 이리브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미국의 VOA방송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보도하였다.

로씨야대통령 대학교육문제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0월 30일 종합대학 총장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대학교육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대학창립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학들에서 준비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입학시키며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라에는 전문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대학들에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한 학생들을 키워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방의 적대시정책 비난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최근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서방의 적대시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렬강들이 핵문제와 관련한 이란과의 회담을 정치화하고 이란에 과학기술적진보를 늦추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회담에서 그 어떤 합의가 이룩된다고 하여도 서방은 또다시 인권문제와 같은 구실을 꾸며내며 반이란정책을 추구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러한 회담에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반범죄투쟁을 강화할 립장 천명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2일 한 연설에서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 나라의 서북부지역에서 무장악당들의 공격으로 경찰들과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 누구도 국가안전성원들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해칠 권리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가 범죄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이며 범죄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극악한 살인행위에 대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만행

이스라엘경찰이 최근 동부꾸드스에서 부당한 구실을 대고 17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행위는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음모책동 규탄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 부상이 1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수리아의 고대유물들을 훔쳐내고 력사유적들을 파괴하도록 극단분자들을 부추김으로써 나라를 황폐화시키려 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적들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것이며 원쑤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 랭전시기 나치스분자들을 간첩으로 리용

미국이 랭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의 나치스분자들을 간첩으로 리용한 사실이 최근 미국신문에 의해 폭로되였다.

신문 《뉴욕 타임스》 10월 27일부는 미중앙정보국과 미련방수사국이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간에 적어도 1 000명의 나치스분자들에게 이전 쏘련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쏘련내에서의 간첩활동 등의 임무를 주었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중에는 유태인대학살을 책임지고 감행한것으로 알려져있는자도 포함되여있었다고 한다.

신문에 의하면 1990년대에 미사법성은 리뜨바에서 유태인 6만명을 학살하는데 관여한 나치스우두머리가 살아있다는것을 미국내에서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그를 간첩으로 리용하였던 미중앙정보국이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한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협조

—브라질, 인디아, 남아프리카가 최근 해상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10일까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앞바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습에는 3개 나라의 각종 함선과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무력이 동원되였으며 실탄사격, 수색, 구조, 반항공 등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10월 31일 아르헨띠나와 바베이도즈는 1990년에 폐쇄되였던 바베이도즈주재 아르헨띠나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캄보쟈와 타이가 10월 30일 국경횡단범죄를 막기 위해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8일 나미비아와 에스또니야는 기술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에꽈도르와 뻬루가 10월 30일 무역, 환경, 하부구조 등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로씨야련방 따따르스딴공화국과 이란은 에네르기분야에서 기술적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반마약투쟁

—로씨야의 법보호기관 성원들이 올해에 들어와 노보씨비르스크지역에서 65㎏이상에 달하는 헤로인을 압수하고 마약밀수통로를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련방안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따쥐끼스딴의 반마약당국이 최근 마약소탕작전을 벌려 여러명의 밀수업자들을 체포하고 130여㎏의 아편과 헤로인을 압수하였다.

한편 끼르기즈스딴에서는 마약밀매를 일삼던 범죄자가 붙잡히고 20㎏이상의 각종 마약이 몰수되였다.

도서관현대화계획

딴마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들을 현대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3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2015년에 양곤, 만달라이, 바고, 싸가잉에 있는 55개의 국립도서관들이 현대적인 정보기술쎈터들로 꾸려지게 된다.

앞으로 전국적범위에서 5 000개이상의 도서관들이 현대화될것이라 한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여 시위

팔레스티나인들이 10월 31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을 폐쇄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들에는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팔레스티나기발을 흔들고 반이스라엘구호를 웨치면서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시위자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여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나라의 경제형편에 비관

영국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우려와 비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0월 31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10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1점 떨어졌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흑막속에 가리워진 에볼라비루스

세계가 에볼라비루스감염증공포에 휘감긴지도 여러달이 흘렀다. 현재 에볼라비루스는 서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있다. 사망자, 감염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약, 예방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불안은 짙어가고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에 에볼라비루스왁찐이 개발되였댔다는것이다. 신문은 2005년 영국잡지 《네이쳐》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학자들이 원숭이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립증된 에볼라비루스왁찐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었다고 밝혀져있다. 당시 왁찐을 개발하여 그것을 주사한 동물들에게서 강한 면역성이 형성되였다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학자들은 2년동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림상실험을 진행한 후 2010—2011년에 가서 왁찐리용허가를 받을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학자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무엇때문인가. 이에 대해 신문은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병이였던것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이 지불능력이 약한 나라들에 요구되는 왁찐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기를 거절하였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기 드문 병이라는것은 제약회사들의 립장에서 보면 약을 생산해야 수요자가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적리득이 별로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제약회사들이 말하는 지불능력이 약한 나라란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뒤떨어진 발전도상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런즉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것이 제약회사들의 립장이였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우에 황금이 놓이는 사회,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보건부문이 취하고있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립장이다.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여 그를 위해 복종하는 자본주의미국의 보건은 이처럼 인간의 생명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이 아니라 돈벌레들의 리윤추구의 상업적공간으로 되고만것이다.

문제는 에볼라비루스왁찐개발이 중단된 원인이 결코 눈앞의 리익을 타산한 약삭바른 제약회사들에만 있다고 볼수 없다는데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미국신문이 보도한바와 같이 당시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되여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경제력이 약한 발전도상나라들에서만 생긴다고 기정사실화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나 기타 서방나라들에서는 이 병이 발생될수 없었는가.

이러한 의문점은 에볼라비루스가 세상에 생겨난 근원을 파헤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그것은 에볼라비루스가 미국이 생물무기용으로 개발한 악성비루스라는데 있다. 로씨야의 한 면역학자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미국이 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내용을 비밀에 붙여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처하여 이전 쏘련이 해당한 방역계획을 작성하였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 결국 에볼라비루스는 자연발생적인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다.

우리는 이 죽음의 병이 1976년 민주꽁고의 에볼라강부근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당시 아프리카의 중부와 동부지역 나라들에 퍼져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데 대해 알고있다. 어떻게 되여 미국이 생물무기용으로 개발한 이 비루스가 이 나라들에서 발견되였는가는 능히 짐작할수 있다. 그것은 지금껏 미국은 위험한 새 무기를 대부분 다른 나라의 령토에서 시험해보았기때문이다. 그러니 에볼라비루스에 대한 시험을 자기 령토가 아닌 다른 나라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험해보았을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 때 에볼라비루스왁찐개발이 중단된것도 우연하지 않다. 왜냐하면 왁찐개발은 비루스를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하여도 그에 해당한 왁찐이 있으면 그것은 벌써 위험한 병으로 되지 않게 된다. 왁찐개발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이 생물무기용으로 만든 악성비루스의 감염속도와 인체에 미치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파악해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현재 미국이 내놓은 에볼라비루스감염증치료제인 《지맵》(ZMapp)에 대해서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이 약을 쓴 사람들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에스빠냐국적의 신부와 리베리아의사는 완쾌되는듯 하더니 숨을 거두었다. 반면에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의사와 간호원을 비롯한 미국인들은 이 왁찐을 사용하고 완쾌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에볼라비루스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가 다 모르는 흑막속에 가리워져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흑막속에 가리워진 사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것이다.

세계제패야망에 들떠 전인류를 멸살시킬수 있는 악성비루스까지 만들어 생물전쟁을 기도한 악의 원흉 미국에 대한 세계의 저주와 규탄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갈것이다.

김 국 철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초

흑인들의 피땀을 밑거름으로 솟은 악마제국

과거에 아메리카대륙에서는 《흑상아》라는 말이 많이 나돌았다.

상아라고 하면 코끼리의 옷턱에 있는 송곳이모양의 긴 앞이를 말하는것이다. 윤기돌고 아름다운 크림색을 띠며 결이 고르롭고 고운 나무무늬모양이 나있는 상아는 그 질이 세공에 적합하여 예로부터 공예품이나 장식품, 기호품 등을 만드는데 진귀한 재료로 널리 리용되여왔다. 한때 아프리카에서는 상아가 금과 같은 중요한 교역품으로 되였었다.

오늘에 와서 많은 나라들이 동물보호를 위해 상아밀매를 금지하고있다.

상아에는 검은색을 띤것이 없다.

그렇다면 《흑상아》는 무엇을 념두에 두고 말한것인가.

그것은 바로 흑인이였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이 흑인들을 《흑상아》라고 불렀다.

원래 아메리카대륙에는 인디안만 있었을뿐 흑인은 없었다.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된 후 유럽식민주의자들은 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대농장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이것은 많은 로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인디안들만 가지고서는 로동력을 보충할수 없었다. 원주민인 인디안들은 미국의 살인조상들에 의해 멸족되다싶이 하였으며 살아남은 인디안들마저도 유럽인들로부터 감염된 천연두를 비롯한 질병들에 대한 면역이 매우 약하여 로동력으로 쓰기 힘들었다.

이로부터 살인범죄자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랍치해갔다.

16세기초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오늘의 아이띠에 첫 흑인노예집단을 끌고갔다. 그 이후부터 서인디아제도와 남아메리카에 흑인노예들이 련속 끌려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에 제임스타운이라는 첫 식민지가 수립된 때로부터 12년만인 1619년에 그곳으로 첫 흑인노예집단이 끌려갔다. 양키선조들은 그때부터 흑인노예사냥과 무역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당시 인디안노예의 가격이 5£였다면 흑인노예는 거의 75£로 매매되였다. 인디안노예보다 흑인노예의 가격은 10배이상이였다.

백인상인들은 저들의 돈주머니를 크게 불리워주는 흑인들을 《흑상아》라고 불렀다.

아프리카는 흑인사냥지대로 변하였다. 노예상인들은 흑인사냥을 위한 무장대까지 조직하고 내몰아 숱한 흑인들을 붙잡아 팔아먹었다.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잠비아, 기네—비싸우, 기네,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세네갈 등의 해안지대들에 노예선이 들어올수 있는 항구가 건설되고 노예들을 현지에서 넘겨받는 대리점들이 설치되였다.

노예사냥군들과 상인들은 흑인들을 몇명씩 철사로 묶어 항구까지 먼거리를 도보로 끌고가서는 노예선들에 짐짝처럼 실어 대양건너 아메리카의 백인노예주들에게 팔아먹었다.

흑인들을 수송하던 도중에 죽은 시체들은 바다에 내버렸다. 보통 1회의 항해중에 노예선의 노예 30%가 죽는것은 례상사였다고 한다. 식량이나 물이 떨어지거나 노예선이 해적들에게 나포될 위험이 생기면 노예상인들은 생명을 가진 《화물》인 흑인노예들을 마구 바다에 처넣어 상어에게 던져주었다. 어찌나 많은 노예들을 바다에 내던졌던지 아메리카로 항행하는 배들은 라침판이 없어도 물우에 떠있는 시체만을 따라가 목적지에 가닿을수 있었다고 한다.

북아메리카의 백인농장주들은 노예선으로 도착한 흑인노예들을 소나 말을 사듯이 앞을 다투어가며 사들였다.

흑인노예의 법적지위는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였다. 노예들은 하루 18시간이상의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백인농장주들은 흑인노예들을 평균 7년정도 깨끗이 부려먹고 기력이 빠지면 쓰레기장에 내버리군하였다.

흑인노예들은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였다. 손과 입은 있지만 글쓰기와 책읽기는 절대로 하면 안되였고 발은 있지만 백인의 동행없이 농장밖으로 나가는것이 엄격히 금지되여있었다. 자유를 찾기 위해 도주하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게 만들었다. 도주하는 흑인들은 백인들이 예고없이 죽일수 있게 법적질서를 세웠다.

녀성노예는 남성노예보다 더 값이 비쌌다.

미국이라고 하는 살인왕국을 세우고 그 운명유지에 기를 쓰고 달라붙은 한 대통령은 이렇게 되까렸다.

《나는 2년에 한번씩 자식을 낳은 녀자노예가 농장에서 제일 훌륭한 남자노예보다 더 큰 리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그 녀자노예가 생산해내는것이 자본을 보강해주는것이라면 남자노예의 로동력은 소모되여 없어지는것에 불과하다.》

그의 말을 통해 알수 있듯이 미국은 흑인노예의 피땀을 밑거름으로 하여 악마제국으로 솟아오르고 비대해질수 있었다.

오늘도 미국에서는 흑인차별의 력사가 지속되고있다.

이런 죄악에 찬 력사를 가진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본사기자 리 경 수

ㄱ-41173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